

가나미네 신사

가나미네 신사는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에서 주요한 신사로서 섬 내에서는 유일하게 신관이 있는 신사입니다. 신사 경내에서는 조몬 시대(기원전 10,000~300 년)의 유적이 발견되어 고대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립

예로부터 현재의 가고시마현 남부에는 하야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11 세기 후반 무렵 이후 동남부에 있는 가이몬다케 산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몬다케 산은 9 세기 후반에 대분화를 일으켜 불의 신이 사는 성스러운 산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 하야토 사람들은 섬을 화산으로부터 지키려고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의 가나미네 신사를 건설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신사는 가나야마히코노미코토와 가나야마히메노미코토라는, 화산 분화를 멈추는 신력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남녀 산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광산과 광부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에서 유행 채굴이 활발했던 1860년대부터 1940년대 초엽까지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축제

신다케 산은 1841년 음력 4월 3일과 6월 15일에 분화했습니다. 그 이래 이 날짜들에는 산들을 진정시켜 분화를 막는 것이 목적인 축제가 개최되어왔습니다. 현재 봄의 축제는 개최되고 있지 않지만, 섬 주민들이 스모 경기에 참가하거나 춤을 추거나 하여 신들에게 봉납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축제는 현재도 열리고 있는데 섬 주민들이 신들에게 춤을 봉납합니다. 그 가운데 '보오도리'에서는 남성들이 몸의 절반 길이 혹은 전체 길이의 봉(일본어로 '보')을 가지고 서로 대치합니다. '히노모토오도리'에서는 여성들이 일본의 국기인 히노마루가 그려진 부채를 들고, 중세 일본을 지배했던 헤이케가 패한 싸움 가운데 하나인 이치노타니 전투를 노래한 곡에 맞춰 평화를 기원하며 춤을 춥니다.

경치와 조형

가나미네 신사는 산들과 바다,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 위-산들을 수호하고, 바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곳-에 있어서 전형적인 일본 고유의 자연 숭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사 건물에는 코끼리 머리와 연꽃 디자인이 포함된 흰 들보가 있는데, 이는 인도의 영향이라고 믿어지고 있으며, 아마도 나라현의 긴푸젠지 절에서 수행한 '야마부시'가 들여왔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단 앞에는 산악 신앙과 불교를 융합시킨 혼합 종교인 슈젠도의 수호신

자오곤젠을 나타내는 상이 있습니다. 야마부시는 산에 기거하며 수행하는 슈겐도의 수행자이며 그들이 이 모티프들을 가나미네 신사에 들여왔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